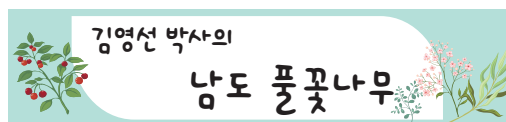


초가을 길목 강렬하게 시선 사로잡아



〈보라빛 메시지 '작살나무'〉

민족의 대명절 추석(秋夕)을 보내고 난 숲은 서서히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유난히도 맹렬했던 올여름의 폭염도 자연의 장엄한 순환 앞에서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초가을로 향하는 길목, 숲길에서 가장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작살나무가 빚어내는 영롱한 진보라색 열매다.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의 기운을 머금은 듯 숲속 못 생명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생태적 빈곤함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녹색도시'의 비전을 다시금 겹쳐보게 된다.

작살나무라는 다소 험악한 이름은, 마주나게 갈라진 가지의 형태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작살'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졌다. 찌르고 포획하는 공격적인 이름을 가졌지만, 잎이 떨어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작살나무가 보여주는 생태적 역할은 이름과는 정반대다. 가지마다 촘촘히 맺힌 구슬 같은 보라색 열매는 다가올 추위와 굶주림에 대비해야 하는 산새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가을 만찬이 되어준다. 생존을 위한 날카로운 구조 속에서도 숲을 먹여 살리는 경이로운 공생의 철학을 품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에서 작살나무가 차지하는 위치는 각별하다. 산지의 경사 지대, 계곡 주변, 길가 등에서 자라는 낙엽 활엽떨기나무다. 꽃은 6~8월에 피는데 잎겨드랑이에 모여 많이 달리며, 연한 자주색이다. 특히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매달려 있는 영롱한 열매는 한반도에 머무는 직박구리와 박새는 물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먼 길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혹독한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핵심 식량원이다. 곤충에게 잎을 내어주고, 새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며 씨앗을 퍼뜨리는 작살나무는 한반도 숲의 복잡한 먹이그물(Food web)을 촘촘하게 엮어내는 생물다양성의 살아있는 축소판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나며, 중국 중부, 일본 등에 분포한다. 한편, 중부 이남에 분포하는 좁작살나무는 잎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으며, 꽃차례는 잎겨드랑이에서 1~4mm 위쪽에



불투수 면적 41% 광주

녹색도시 생태망 구축 시급

폭염 식힐 비밀열쇠

광주에 '백만평 숲' 조성돼야

나므로 다르다. 관상용, 생물다양성으로 심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수십 년간 효율과 성장이라는 개발 논리는 마치 잿빛 콘크리트 작살처럼 도시의 숨통을 사정없이 찔러왔다. 자연의 물길과 못 생명의 서식처를 아스팔트로 덮어버린 대가로, 광주특별시 서구의 불투수포장 비율은 무려 41.63%에 달한다. 올여름 우리가 겪은 살인적인 폭염은 자연의 순환을 거스른 뾰족한 개발의 작살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뼈아픈 경고다.

이제 우리는 군공항 부지 이전이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이 공간을 지구적 차원의 환경 기준인 '국제생물 다양성협약(CBD)'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2030년까지 전 지구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30×30' 목표는 생물 대멸종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호지역 비율은 약 19% 수준이다. 도심 한복판 250만 평의 군 공항 종전 부지는 잿빛 공장지로 채워 땅이 아니라, 무등산국립공원과 장록국가습지, 영산강을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네트워크의 관문이자 멸종위기종들의 쉼터인 '백만평광주 숲'으로 거듭나야 할 곳이다. 행여 속도전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0% 이상 숲으로 남겨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마지막 기회인 땅이다.

사실, 작살나무를 비롯한 숲의 식물들 시선에서 바라본 도시는 너무나 단단하고 매마른 불모지다. 두꺼운 아스팔트와 겹겹이 발라진 콘크리트는 작은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릴 단 한 줌의 흙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거창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인공 조경이 아니다. 그저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부드러운 흙과 계절의 바람과 곤충들이 자유롭게 날아들 수 있는 열린 공간뿐이다.

따라서 전남광주특별시가 새롭게 품어야 할 백만평광주숲은 인간의 오만함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작살나무와 역센 갈대, 그리고 수많은 들풀과 나무들이 스스로 찾아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단히 잡겨있던 흙의 빗장을 묵묵히 '열어주는' 일이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도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흙이 숨을 쉬게만 해준다면, 식물들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씨앗을 틔우고 거대한 숲을 이루어 오염된 공기를 씻어내고 도시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것이다.

작살나무가 그 날카로운 가지 끝에서 기어이 눈부신 보라빛 열매를 맺어 숲의 못 생명들을 먹여 살리듯, 식물들이 자신의 잎과 뿌리로 부서진 도시의 땅을 스스로 치유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녹색도시가 생태계와 맺어야 할 가장 위대한 연대이자, 숲과 인간이 함께 누려야 할 풍성한 가을의 진짜 모습일 것이다.

▲참고 문헌 <https://species.nibr.go.kr/index.do>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http://www.nature.go.kr/kpni/index.do/> 국가표준식물목록

김영선 환경생태학 박사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AH 글로벌